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1)

# 鮮克有終

선 극 유 종

끝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제대로 열려야 했다. 그런데 개월일부터 국회는 두 쪽이 났다. 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을 뽑고 국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야당이 국회 운영의 관리를 뒤엎었으니 원상으로 돌려놓으라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현상일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李在明) 의원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야당에서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다.'라는 것이고, 야당은 이재명 하나를 '방탄'하기 위하여 온갖 무리수를 다 쓴다고 비난한다.

진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가려고 온갖 무리수를 쓰는 것인지 나는 분명하게 알 수 없고 짐작할 뿐이다. 다만 이 싸움 판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반드시 빨리 처리하여야 할 여러 안전들은 손도 못 대어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사회변동에 발맞추는 임박 활동은 중지된 상태이다. 온 나라가 짝 맞았다.

이 경우에 문제의 중심에 선 이재명의원은 어떠한 태도여야 할까? 그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고, 국회에서 다수당의 대표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 나라의 지도자이니, 그는 지도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개인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려는 데 힘쓰겠다는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지도자는 아니다.

지도자는 어떠한 할까? 여기서 속자 치통감에 실려 있는 남송 말(宋)에 황제인 이종(理宗)과 경연(經筵) 담당관 정청지(鄭淸之)의 대화를 소개하고 싶다. 정청지가 역대 황제에 관한 강론을 하자 이종(理宗)이 말하였다. "짐(朕)이 보건대, 한·당(漢·唐) 이후의 인주(人主) 가운데 끝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사람은 적었다." 한·당 이후 역사를 살펴보니 황제가 되어서 끝을 잘 맺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건국 이후 역사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 가운데 끝을 잘 맺을 수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보았다. 불행하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하와이 망명

길을 떠났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게 시해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옥고를 치러야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의 부패와 관련되어 수사받던 중에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이종(理宗)이 역대 황제가 끝을 잘 맺지 못하였다고 본 것과 유사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종은 '도(道)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도(道)가 무엇일까? '길'이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니는 길로 가면 문제 없는 데,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길 아닌 곳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안정한 통로이다. 그러나 이 길은 때때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돌아가지 않고 빨리 가려면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논밭으로 남의 작물을 밟아버리며 가야 한다.

보통 사람은 남의 경작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권력이 있거나 재주부리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 길 아닌 남의 경작지를 밟고 간다. 그것이 부패이고 무도(無道)이지만, 이를 모르고 길 아닌 남의 경작지를 밟고 지나갈 때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의기양양할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역사의 긴 눈으로 본다면 완전한 실패다. 이를 무도(無道)함으로 역사의 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황제가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데 왜 계속 반복하여 끝이 좋지 않을까? 황제는 그것이 궁극했는지 경연에 참여하였던 왕기(王璽)에게 묻는다. "하(夏)의 결(桀)이 부도(不道)하자 성탕(成湯)이 그를 방축(放逐)하였으니 이를 거울로 삼을 수 있을 터인데 주(紂)는 어떻게 다시 앞에서 실패하였던 발자국을 다시 밟고 따라갔는가?"

왕기는 바로 대답한다.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 주(紂)가 살던 시절에는 망한 전 왕 조인 하(夏)의 마지막 임금 결(桀)이 실패한 역사가 그리 먼 옛날 일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거울삼아 볼 수 없어서입니다.' 이른바 은감불원(殷鑑不遠)으로 대담하였다. 나아가서 '이 역사를 보면 스스로 고쳐야 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그 후 이종과 정청지, 왕기는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을 끄집어내어 토론한다. 진시

황(秦始皇)이 무력으로 독재하다가 실패한 역사를 배우고서도 한무제(漢武帝)도 무력으로 흉노를 정벌하려고 무리수를 쓰다가 망했으며, 수양제(隋煬帝)가 고구려를 침범하였다가 망한 역사를 가까이서 보았던 당태종(唐太宗)은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실패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 현대사를 보아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는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던 자유당의 아첨을 이기지 못하여 3.15부정선거라는 큰 실수로 그 앞의 공로가 거의 날아가 버렸다. 4·19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나아가 안정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위대하지만 역시 유신헌법이라는 무리수 때문에 그 마지막을 비극으로 끝냈다. 마지막에 길 아닌 길을 간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자.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검찰이 독재한다.'고 치자. 그러나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막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서 야당을 총동원하여 그 일에 몰입하여 민생(民生)을 뒷전에 쫓겨나게 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의 인성(人性)일까? 오히려 지도자라면 나는 희생여도 좋으니 이 나라, 이 국민을 잘살게 하도록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의 태도가 아닌가? 그래도 정부가 안 들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책임이니 역사에서 그에게 물을 것이다.

그런데 '쑤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독배를 마셨다. 인류사에 이만큼 큰 저항은 없었다. 그래서 쑤크라테스는 역사에서 끝을 잘 맺은 성공한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현대사에는 인도 간디의 저항, 남아공화국 만델라의 저항이 있는데, 그의 저항은 세계 모든 사람이 그편에 서는 저항이고 그래서 모두 그를 추앙한다. 끝이 좋은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옥고를 겪고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역사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저항이 이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 그러나 이 대표의 태도를 바꾸어 스스로는 희생하더라도 나라는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종(善終)하는 저항이 될 수 있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신 유교사상을 주장하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 경천애인(敬天愛人)

공경할 경. 하늘 천. 사랑 애. 사람 인.

뜻 :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하늘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는 군주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 경천애민(敬天愛民), 외천애민(外天愛民)도 같은 말로 쓰인다.

## 경거망동(輕舉妄動)

가벼울 경. 들 거. 망령될 망. 움직일 동.

뜻 : 일의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함

유래 : 한비자 해로(解老) 편에서 유래  
세상의 이치와 인간적 도의를 지킬 줄 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리를 지키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움직이면 갖고 있던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사의 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천동지(경천동지)

놀랄 경. 하늘 천. 움직일 동. 땅 지.

뜻 :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한다.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하는 일을 두고 이르는 말

유래 : 주자어록에 나오는 성어(成語)  
주자는 남송시대의 철학자로 신 유교사상으로 주자학,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대성한 학자이다. 주자는 세계를 이와 기의 관계로 풀이하는 주자학, 성리학으로

## 하당 권두인과 창설재 권두경 등 천성사로(川城四老)의 생애와 학문 학술발표회 개최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주최로 봉화군청소년센터에서는 '천성사로의 생애와 학문'을 주제로 약 300여명의 유림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구에 이완(龜厓 李璣), 모산 이동완(茅山 李棟完), 하당 권두인(荷塘 權斗寅), 창설재 권두경(蒼雪齋 權斗經) 등 학문과 사람 됨이 남달라 '천성사로(川城四老)'라 일컬어지던 지역의 유학자 4인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선비정신을 되새기며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천성사로 중 하당 권두인(荷塘 權斗寅), 창설재 권두경(蒼雪齋 權斗經) 두 분은 충재 권벌(沖齋 權穰)의 현손이며 재종형제간으로 창설재가 하당의 재종제로서 안동 권씨 유곡(諱諱)과의 전형을 마련하였다.

권두인(1643~1719)은 자가 춘경(春卿), 호가 하당(荷塘)이다. 유곡에서 태어나서 유곡에서 성장하고, 유곡에서 삶을 마쳤으니 유곡의 인물을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권두경(1654~1725)은 자가 천장(天章), 호가 창설재(蒼雪齋)로 퇴계의 적전이라 평가되는 갈암 이현일의 문도로서 전기 퇴계 학풍을 온전히 계승했음은 물론 퇴계의 언행을 정리한 퇴계선생언행통록(退溪先生言行通錄)과 퇴계의 제자들에게 대해 정리한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을 남김으로써 후기 퇴계학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학술발표는 황만기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하당 권두인과 창설재 권두경의 삶과 학문 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는 연례행사로 경북 지역을 순회하며 유학자를 재조명하는 학술 발표회를 개최해 요즘 시대에 필요한 선비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재업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회장은 "불의에 대해 물러설 줄 모르는 강직한 천성사로의 선비정신을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의미깊은 시간이었다"며 "문집발간에 협조해 주신 후손들과 봉화 유림 관계자분, 주제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창설재 12대 주손 권진우(37세)

## <2024년 6월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5.29. ~ 6.26.  
총 납부자 20명  
지사·지국 1곳

(이름순)		단위:원	
권경숙(대구)	30,000	권순찬(안동)	50,000
권덕근(서울동대문)	30,000	권영삼(봉화)	30,000
권두삼(김제)	60,000	권영훈(강릉)	30,000
권만집(상주)	30,000	권오기(예천)	30,000
권부중(고흥)	30,000	권오준(경기부천)	30,000
권서영(영주)	30,000	권오훈(서울은평)	30,000
권용태(서울광진)	30,000	권인택(경기수원)	30,000
권혁조(포항)	30,000	권정집(세종)	30,000
권후원(청주)	30,000	권종삼(서울강서)	30,000
권재창(산청)	30,000	권택호(안동 용상동)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안양총친회 15부	300,000원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총 950,000원

##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 안내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종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연락처

▶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총회